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활동경험과 음악흥미도 관계 연구

신 연 서

대구대학교 시각장애연구소

이 해 균*

대구대학교

《 요 약 》

본 연구는 시각장애학생의 음악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음악활동경험과 음악흥미도를 배경변인에 따라 분석하고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첫째, 시각장애학교 중·고등학생의 음악경험활동은 높은 수준으로 활동유형은 방과후 학교, 동아리 활동, 사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각장애학생의 전반적인 음악흥미도는 높은 수준이며, 이 중 음악감상이 가장 높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과정별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다. 시력정도별로는 맹학생이 저시력학생보다 높았고, 시각손상시기별로는 선천성학생이 후천성학생보다 높았다. 또한 음악활동 경험에 따라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높았다. 셋째, 시각장애학생의 음악활동 경험 유무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음악흥미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을 때 두 집단 모두 정적상관이 있다.

주제어 : 시각장애, 음악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교수 (gyunlee@daegu.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유년기에 경험한 음악을 내면화하여 음악흥미를 키워가야 할 때이다. 신체적, 발달적, 심리적으로 급변하는 청소년기의 발달 과정에서 그들의 학업과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악적 요인을 파악하고 그것들의 인과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음악발달을 위한 음악적 요인 중 음악경험은 학생이 음악적 흥미를 느껴 음악교육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 음악경험을 통한 음악적 친밀한 환경은 그 사람이 갖는 음악흥미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때문에 청소년기의 적절한 음악활동경험을 통하여 음악적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에 음악경험의 중요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미 입증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지속되어 오고 있는 음악교육의 기본적인 관심사이다. 음악경험, 음악활동의 중요성은 엘리엇에 의해 크게 부각되었다(Elliot, 2013). 그는 음악은 음악작품이 아니라 음악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음악을 경험하고 실행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음악을 지각하고 느끼는 내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음악을 체험하고 표현해 보는 것이 음악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음악경험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학생의 음악흥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한다. 음악흥미는 음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음악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와 음악을 옹호하려는 마음가짐, 애호심, 긍정적인 가치관을 포함하는 말로 음악에 관한 정의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권덕원, 2005)으로 음악교육에 있어 학생이 음악을 가까이 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알고 싶어 할 때 가장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음악에 대한 흥미는 학습자가 음악이라는 대상에 자기를 동화시킴으로써 음악흥미는 더욱 증진되므로 일생을 음악을 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학교 교육을 마친 후에도 음악을 즐기며,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음악은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예술 활동이며(Lowenfeld, 1971) 실제로 많은 시각장애학생들이 다른 예술 활동 보다 음악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박순희, 2010).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시각장애학교에서도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시각장애학생들의 음악특기적성에 대한 연구들을 통하여 각 학교에서 다양한 합주 활동과 합창, 기악연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음악적인 역량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선희, 2011; 김용복, 2006; 김홍대, 2011; 손지희, 2007).

그러나 그동안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음악교육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연구와(박채경, 2011; 손지명, 1995; 이은옥, 2005) 시각장애학생의 음악교과 영역 중 표현활동, 즉 가창, 기악, 작곡, 감상영역에서의 인식과 교수법들에 대한 연구(김정화, 2012; 이명신, 2005)로만 이루어졌다. 국내의 시각장애학생에게 음악적 특징에 대한 연구와 음악학습의 동기가 되는 음악흥미에 대한 연구가 없을뿐더러 시각장애학생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음악활동경험이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음악교육 및 음악활동을 위해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각장애학생의 음악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활동경험과 음악흥미도를 배경변인에 따라 분석하고 그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시각장애학생의 음악 교과와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고 시각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 및 교육 환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활동경험과 음악흥미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의 성별, 과정별, 시력정도별, 손상시기별의 배경변인 별로 조사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배경변인별 음악활동경험은 어떠한가?
- 둘째,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배경변인별 음악흥미도는 어떠한가?
- 셋째,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활동경험과 음악흥미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시각장애학생의 음악활동경험과 음악흥미를 알아보기 위해 12개 시각장애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중등학생 중 중복장애학생을 제외한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배경변인		빈도(N)	백분율(%)
성별	남	80	55.2
	여	65	44.8
과정별	중학생	63	43.4
	고등학생	82	56.5
시력정도별	맹	64	44.1
	저시력	81	55.9
손상시기별	선천성	99	68.3
	후천성	46	31.7
전 체		145	100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검사도구로는 음악활동경험과 음악흥미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음악활동경험에 관한 설문지와 음악흥미 검사지는 장지혜(2012), 김선희(2011), 박채경(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시각장애학교 음악교사 2명, 연구자가 시각장애학생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응답은 리커트 척도 5단계를 활용하였다. 또한 수정한 설문내용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D맹학교 중·고등학생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 문항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인별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음악활동경험 및 음악흥미 문항 구성과 신뢰도

영역	하위요인	문항내용	문항수	Cronbach's α
음악 활동 경험	동아리 활동	관현악반, 합주반, 합창반의 활동참여, 기간, 활동 진행여부	3	해당없음
	방과후 학교	악기 별 활동참여, 기간, 활동 진행여부	3	해당없음
	사교육	개인교습, 음악학원, 그룹지도의 활동 참여, 활동 기간, 활동 진행여부	3	해당없음
음악 흥미 도	수업 관련	음악수업관련 태도, 중요성, 집중도, 관심도	5	.715
	음악감상	실생활에서의 음악감상 및 음악회참석여부	4	.605
	음악활동	음악활동 참여와 심미성 여부	4	.680
	음악직업	장래 음악과 관련된 직업 흥미도	2	.703
	음악이해	음악이론 이해와 음악서적에 대한 흥미	3	.666
	음악장르	다양한 음악장르 선호에 대한 흥미도	3	.661
전 체			30	.695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전국 12개교 시각장애학교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목자와 점자설문지 및 E-mail을 통한 파일의 형태로 배부하였으며, 총 187부를 배부하여 145부가 회수되었고 77%의 회수율을 보였다.

4.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0.0K for Window를 이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 변인에 따라 음악활동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음악흥미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활동경험 유·무가 음악흥미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활동경험 분석

1) 음악활동경험의 유무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활동경험을 배경변인에 따라 분석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음악활동경험의 유무를 알아보았다. 음악활동 유무와 관련된 빈도분석은 <표 3>과 같다.

<표 3> 음악활동경험의 유무

경험유무	빈도(명)	백분율(%)
유	123	84.8
무	22	15.2
합계	145	100

<표 3>과 같이 음악활동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145명 중 123명으로 84.8%에 해당하며, 어떠한 음악활동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은 22명으로 15.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이 음악활동경험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일반학생의 음악활동경험과 비교하면 조윤경(2009)과 조윤정(2012)의 일반학교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70%의 이하의 학생들이 음악활동경험에 참여한 것을 보았을 때 시각장애학생의 음악활동 참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음악활동경험의 참여유형의 특성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활동경험 중 유 경험 집단학생의 음악활동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음악활동경험 유형별 학생비율

하위 요인	빈도(명)	백분율(%)
동아리 활동	107	36.6
방과후 학교	110	37.6
사교육	75	25.6
전 체	123	100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145명 중 참여율을 살펴보면 방과후 학교(37.6%), 동아리활동(36.6%), 사교육(25.6%)순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이 방과후 학교에서 높은 참여도를 보이는 이유는 사교육비 경감에 따른 운영으로 모든 학교에서 시·도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상민(2011)의 연구에서는 시각장애학교 내에서 방과후 학교의 운영프로그램 중 악기 연주와 같은 음악관련 수업이 4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시각장애학교 내에서의 음악과 관련된 방과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지혜(2012)의 일반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악활동경험 중 사교육의 비율이 57.9%로 가장 높았던 연구결과와 대조된다. 이것은 방과후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 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나 시각장애학생이 일반 사교육 형태의 개인 교습 및 음악학원에의 물리적, 심리적 접근이 어려움을 추측할 수 있다.

(1) 동아리 활동 참여 유형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동아리 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동아리 활동 참여 유형 N=107

배경변인		관현악반	합주반	합창반	합계	χ^2
성별	남	36(33.6)	21(19.6)	3(2.8)	60(56.1)	4.89
	여	28(26.2)	11(10.3)	8(7.5)	47(43.9)	
과정별	중학생	28(26.2)	13(12.1)	8(7.5)	49(45.8)	3.66
	고등학생	36(33.6)	19(17.8)	3(2.8)	58(54.2)	
시력정도	맹	30(28.0)	12(11.2)	7(6.5)	49(45.8)	2.32
	저시력	34(31.8)	20(18.7)	4(3.7)	58(54.2)	
손상시기	선천성	46(43.0)	18(16.8)	6(5.6)	70(65.4)	2.94
	후천성	18(16.8)	14(13.1)	5(4.7)	37(34.6)	
전 체		64(59.8)	32(29.9)	11(10.2)	107(100)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음악동아리 활동의 유형은 전체적으로 관현악반(59.8%)이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였으며 합주반(29.9%), 합창반(10.2%)의 순으로 높게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반학교 내에서의 중·고등학생들 또한 음악동아리의 형태 중 오케스트라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윤애지(2012)의 연구와 일치한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 과정별, 시력정도별, 손상시기별로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방과후 학교 참여 유형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방과후 학교 참여 유형 N=110

배경변인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피아노	국악	합계	χ^2
성별	남	15(13.6)	23(20.9)	12(10.9)	4(3.6)	8(7.3)	62(56.4)	17.9**
	여	15(13.6)	14(12.7)	3(2.7)	15(13.6)	1(0.9)	48(43.6)	
과정별	중	14(12.7)	17(15.5)	6(5.5)	5(4.5)	6(5.5)	48(43.6)	4.53
	고등	16(14.5)	20(18.2)	9(8.2)	14(12.7)	3(2.7)	62(56.4)	
시력 정도	맹	14(12.7)	22(20)	6(5.5)	6(5.5)	3(2.7)	51(46.4)	5.08
	저시력	16(14.5)	15(13.6)	9(8.2)	13(11.8)	6(5.5)	59(53.6)	
손상 시기	선천성	24(21.8)	23(20.9)	9(8.2)	14(12.7)	5(4.5)	75(68.2)	3.93
	후천성	6(20.0)	14(12.7)	6(5.5)	5(4.5)	4(3.6)	35(31.8)	
전 체		30(27.2)	37(33.6)	15(13.6)	19(17.2)	9(8.1)	110(100)	

** $p < .01$

<표 6>를 통하여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과 관련된 방과후 학교에 참여 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목관악기(33.6%), 현악기(27.2%), 피아노(17.2%), 금관악기(13.6%), 국악(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과정별, 시력정도별, 손상시기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목관악기(20.9%), 현악기(13.6%), 금관악기(10.9%), 국악(7.3%), 피아노(3.6%)순으로 높게 참여하였고, 여학생은 현악기와 피아노(15.6%), 목관악기(12.7%), 금관악기(2.7%), 국악(0.9%)순으로 높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방과후 학교의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유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이 성별로 선호하는 음악장르와 악기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학생의 악기 유형 중 관악기의 선택이 높은 것은 김선희(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시각장애학생 중 남학생들의 관악기

선호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관악기의 경우 악기의 무게와 악기를 붙 때에 남성적인 힘이 필요함에 따라 남학생들이 관악기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3) 사교육 참여 유형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사교육 참여 유형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사교육 참여 유형 N=75

배경변인		개인교습	음악학원	그룹지도	합계	χ^2
성별	남	17(22.7)	14(18.7)	5(6.7)	36(48.0)	1.91
	여	17(22.7)	16(21.3)	6(8.0)	39(52.0)	
과정별	중	20(26.7)	9(12.0)	7(9.3)	36(48.0)	.10
	고등	14(18.7)	21(28.0)	4(5.3)	39(52.0)	
시력정도	맹	22(29.3)	11(11.7)	3(4.0)	36(48.0)	6.56*
	저시력	12(16.0)	19(25.3)	8(10.7)	39(52.0)	
손상시기	선천성	26(34.7)	24(32.0)	4(5.3)	54(72.0)	7.23*
	후천성	8(10.7)	6(8.0)	7(9.3)	21(28.0)	
전 체		34(43.3)	30(40.0)	11(16.6)	75(100)	

* $p < .05$

<표 7>를 통하여 음악과 관련된 사교육 참여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개인교습(43.3%), 음악학원(40.0%), 그룹지도(16.6%)순으로 높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시력정도별과 손상시기별이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른 배경변인인 성별과 과정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력정도별에 따라 맹학생은 개인교습비율(29.3%), 음악학원(11.7%), 그룹지도(4.0%)순으로 높게 참여하였으며 저시력학생은 음악학원(25.3%), 개인교습(16.0%), 그룹지도(10.7%)순으로 높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력정도에 따른 학생의 특성에 따라 맹학생이 악기나 합창, 기타 음악연주시 자세교정과 악보를 보는데 시각적인 결여가 있으므로 개별적인 학습이 이루어 질 때 정확한 지도가 이루어지므로 맹학생의 개인교습의 비율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손상시기별로 살펴보면 선천성 시각장애학생은 개인교습(34.7%), 음악학원(32.0%), 그룹지도(5.3%)순으로 높게 참여하였고, 후천성 시각장애학생은 개인교습(10.7%), 그룹지도(9.3%), 음악학원(8.0%)순으로 높게 참여하여 두 집단의

참여유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시각장애학생은 개인교습을 가장 선호하나 장애손상시기별로 그룹지도와 음악학원에 등록하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동아리 활동기간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동아리 활동기간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동아리 활동기간 N=116

배경변인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7년미만	7년이상	전체	χ^2
성별	남	19(16.4)	24(20.7)	19(16.4)	4(3.4)	66(59.9)	6.91
	여	6(5.2)	27(23.3)	16(13.8)	1(0.9)	50(43.1)	
과정별	중	12(10.3)	20(17.2)	18(15.5)	1(0.9)	51(44.0)	2.58
	고등	13(11.2)	31(26.7)	17(14.7)	4(3.4)	65(56.0)	
시력정도	맹	9(7.8)	17(14.7)	22(19.0)	4(3.4)	52(44.8)	10.6*
	저시력	16(13.8)	34(29.3)	13(11.2)	1(0.9)	64(55.2)	
손상시기	선천성	15(12.9)	38(32.8)	20(17.2)	5(4.3)	78(67.2)	5.89
	후천성	10(8.6)	13(11.2)	15(15.9)	0(0.0)	38(32.8)	
전체		25(21.5)	41(41.3)	35(30.1)	5(4.3)	116(100)	

* $p < .05$

<표 8>를 통하여 동아리 활동기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41.3%), 3년 이상 7년 미만(30.1%), 1년 미만(21.5%), 7년 이상(4.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시력정도별이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배경변인인 성별과 과정별, 손상시기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력정도별로 살펴보면 맹학생은 3년 이상 7년 미만(19.0%), 1년 이상 3년 미만(14.7%), 1년 미만(7.8%), 7년 이상(3.4%)순으로 높게 참여하였고, 저시력 학생은 1년 이상 3년 미만(29.3%), 1년 미만(13.8%), 3년 이상 7년 미만(11.2%), 7년 이상(0.9%)순으로 높게 나타나 두 집단의 동아리 활동 경험 기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이 시력정도별로 활동기간이 다르다는 것은 음악활동경험 참여시기가 활동을 유지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맹학생이 저시력학생보다 음악과 관련하여 배울 기회가 많았고, 오랜 기간 배운 것으로 나타난 이창호(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맹학생이 저시력학생보다 음악과 관련해서 일찍부터 음악활동에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음악활동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 사교육 활동기간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사교육 활동기간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사교육 활동기간 N=75

배경변인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전체	χ^2
성별	남	11(14.9)	13(17.6)	10(13.5)	2(2.7)	36(48.6)	2.09
	여	7(9.5)	17(23.0)	13(17.6)	1(1.4)	38(51.4)	
과정별	중	9(12.2)	(18.9)	12(16.2)	0(0.0)	36(47.3)	2.96
	고등	9(12.2)	16(21.9)	11(14.9)	3(4.1)	39(52.7)	
시력정도	맹	9(12.2)	8(10.8)	17(23.0)	1(1.4)	35(47.3)	11.94**
	저시력	9(12.2)	22(29.7)	6(8.1)	2(2.7)	39(52.7)	
손상시기	선천성	11(14.9)	22(29.7)	18(24.3)	2(2.7)	53(71.6)	1.55
	후천성	7(9.5)	8(10.8)	5(6.8)	1(1.4)	21(28.4)	
전체		18(24.0)	30(40.0)	23(30.6)	3(4.0)	75(100)	

** $p < .01$

<표 10>을 통하여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사교육 활동기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40.0%), 3년 이상 7년 미만(30.6%), 1년 미만(24.0%), 7년 이상(4.0%)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시력정도별이 통계적으로 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으며, 성별과 과정별, 손상시기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력정도별을 살펴보면 맹학생은 3년 이상 7년 미만(23.0%), 1년 미만(12.2%), 1년 이상 3년 미만(10.8%), 7년 이상(1.4%)순으로 높게 참여 하였으며 저시력학생은 1년 이상 3년 미만(29.7%), 1년 미만(12.2%), 3년 이상 7년 미만(8.1%), 7년 이상(2.7%) 순으로 높게 참여하여 두 집단의 사교육 활동 기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시력정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음악동아리 활동, 방과후 학교, 음악과 관련된 사교육 활동기간에서 맹학생이 오랜 기간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이를 종합해보면 맹학생이 저시력학생보다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활동기간의 유지 또한 장기간 참여하여 꾸준히 학생들의 음악적인 기량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동아리 활동 현재 진행여부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동아리활동을 현재도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11>과 같다.

<표 11> 동아리 활동 현재 진행여부 N=107

배경변인		예	아니오	합계	χ^2
성별	남	25(23.3)	31(26.5)	56(52.3)	5.65*
	여	38(35.5)	13(11.1)	51(47.3)	
과정별	중	31(28.9)	16(14.9)	47(43.9)	1.86
	고등	32(29.9)	28(26.1)	60(56.0)	
시력정도	맹	30(28.0)	18(16.8)	48(44.8)	.35
	저시력	33(30.8)	26(24.2)	59(55.1)	
손상시기	선천성	38(35.5)	31(26.5)	69(64.4)	.27
	후천성	25(23.3)	13(11.1)	38(47.6)	
전 체		63(58.8)	43(40.1)	107(100)	

* $p < .05$

<표 11>을 통하여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이 현재도 음악활동경험 중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을 때 117명의 학생 중 63(58.8%)명이 활동을 유지하고 있고, 활동을 중단한 학생은 43(40.1%)명으로 나타나 반 이상의 학생들이 활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안학생의 경우 전체 참여학생의 75.2%가 음악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장지혜(2012)의 연구와 대조된다. 이는 정안학생보다 시각장애학교 중·고등학생이 음악에 대한 활동의 비중이 높고 이들이 음악적 흥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각장애학생의 독특한 음악경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배경변인별로 성별이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외 과정별, 시력정도별, 손상시기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활동을 중단한 학생(26.5%), 활동을 유지하는 학생(23.3%)순으로 높게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은 활동을 유지하는 학생(35.5%), 활동을 중단한 학생(11.1%)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음악동아리 활동경험의 현재 진행여부에서의 차이가 있었다.

최신혜(2014)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음악활동참여유지가 남학생보다 높았는데 그 이유를 일반적으로 음악이 여학생에게 더 어울리는 것으로 인식하여 음악적 활동에 여학생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활동에서의 남녀 성차는

(9) 사교육 현재 진행여부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사교육 중 현재도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13>과 같다.

<표 13> 사교육 현재 진행여부 N=75

배경변인		예	아니오	합계	χ^2
성별	남	18(24.0)	20(26.6)	38(50.6)	1.47
	여	21(28.0)	16(21.3)	37(49.3)	
과정별	중	24(32.0)	12(16.0)	36(48.0)	5.86*
	고등	15(20.0)	24(32.0)	39(52.0)	
시력정도	맹	20(26.6)	14(18.6)	34(45.3)	1.19
	저시력	19(25.3)	22(29.3)	41(54.6)	
손상시기	선천성	25(33.3)	28(37.3)	57(76.0)	1.04
	후천성	14(18.6)	8(10.6)	22(29.3)	
전 체		43(57.3)	32(42.6)	75(100)	

* $p < .05$

<표 13>을 통하여 현재도 음악활동경험 중 사교육 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본 바, 75명의 학생 중 43(57.3%)명이 활동을 유지하고 있고, 활동을 중단한 학생은 36(42.6%)명으로 나타나 반 이상의 학생들이 활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장지혜(2012)의 연구와 대조되는 것으로 정안학생은 사교육 활동의 유지비율이 15.7%으로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정안학생은 음악활동 중 사교육활동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진행하는 비율은 가장 낮았다. 반대로 시각장애학생은 사교육 또한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과정별이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외 성별, 시력정도별, 손상시기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과정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맹학생은 활동을 유지하는 학생(26.6%), 활동을 중단한 학생(18.6%) 순으로 나타났으나 저시력 학생은 활동을 중단한 학생(29.3%), 활동을 유지하는 학생(25.3%)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사교육활동의 참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흥미 차이검증

1)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전반적인 음악흥미 분석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흥미를 배경변인에 따라 분석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음악흥미 관하여 알아보았다. 음악흥미에 관련된 기술통계량은 <표 14>와 같다.

<표 14> 음악흥미도 하위 요인별 기술 통계량 N=145

하위요인	M	SD
음악수업	3.66	.71
음악감상	3.77	.79
음악활동	3.66	.89
음악직업	3.72	.91
음악이해	2.96	1.02
음악장르	3.72	.91
전 체	3.58	.71

<표 14>에 의하면 전체 평균이 보통수준(2.50 ≤ 3.49)보다 높은 3.58점으로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흥미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음악흥미의 하위 요인을 비교하면 음악감상(M = 3.77), 음악직업(M = 3.72), 음악장르(M = 3.72), 음악수업(M = 3.66), 음악활동(M = 3.66), 음악이해(M = 2.96) 순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음악흥미의 하위요인 중 음악감상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평상시에도 음악감상이 필요한 것으로 학생들이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음악감상이 학생들에게 가장 음악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박한나(2011)의 연구에서 시각장애학생이 평상시 음악감상에 대한 필요성을 보통이다(35.0%), 많이 느낀다(29.4%)의 순으로 나온 것과 일치하며 음악수업 중 감상의 영역에 대한 학생 개인의 태도는 진지하게 듣는다(49.0%)의 응답을 통하여 학생들이 음악수업에서도 음악감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음악장르와 음악직업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직업에 대한 흥미도는 시각장애학생들이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과 같다. 그러나 황선경(2007)의 연구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 연주자는 2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시각장애 전체인구에 대비하면 낮은 숫자라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시각장애 중등학생들의 음악과 관련된 직업은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접근에 있어서 학급의 차이를 두어 고등학생의 경우 심화되고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통하여 꾸준히 음악흥미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악흥미도 하위요인 중 음악활동과 음악직업에서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 외의 음악수업, 음악감상, 음악이해, 음악장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음악활동은 고등학생(M = 3.63)이 중학생(M = 3.46)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시각장애학교 고등학생은 음악활동에 대해서 중학생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음악직업은 고등학생(M = 3.37)이 중학생(M = 3.07)보다 진로의식 중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가가 되기 위한 바람을 볼 수 있다.

4) 시력정도별 음악흥미도 차이검증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시력정도별 음악흥미도를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표 17> 시력정도별 음악흥미도 차이검증 N=145

하위요인	시력정도별	N	M	SD	t
음악수업	맹학생	64	3.76	.76	1.36*
	저시력	81	3.48	.85	
음악감상	맹학생	64	3.83	.77	.75
	저시력	81	3.64	.81	
음악활동	맹학생	64	3.66	.82	.02
	저시력	81	3.66	.95	
음악직업	맹학생	64	3.81	.98	.78*
	저시력	81	3.56	.86	
음악이해	맹학생	64	3.02	1.11	.61
	저시력	81	2.91	1.01	
음악장르	맹학생	64	3.79	.98	.78*
	저시력	81	3.57	.76	
전 체	맹학생	64	3.59	.71	.91*
	저시력	81	3.38	.71	

*p < .05

<표 17>를 통해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시력정도별 음악흥미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 맹학생(M = 3.59)이 저시력학생(M = 3.38)보다 음악흥미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음악수업과 음악직업, 음악장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임형진(2013)의 연구에서는 저시력학생과 맹학생의 음악흥미도가

<표 18>를 통하여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손상시기별 음악흥미의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를 살펴보면 선천성 시각장애학생(M = 3.43)이 후천성 시각장애학생(M = 3.41)은 음악흥미도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하위요인 중 음악수업과 음악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그 외의 음악감상, 음악직업, 음악이해, 음악장르에서는 두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음악수업은 선천성 시각장애학생(M = 3.70)이 후천성 시각장애학생(M = 3.34)보다 음악흥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활동은 후천성 시각장애학생(M = 3.80)이 선천성 시각장애학생(M = 3.49)보다 음악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6) 음악활동경험 유무에 따른 음악흥미도 차이검증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음악흥미도의 차이는 <표 19>와 같다.

<표 19> 음악활동경험 유무에 따른 음악흥미도 차이검증 N=145

하위요인	집단	N	M	SD	t
음악수업	유	123	3.77	.76	4.06***
	무	22	3.04	.82	
음악감상	유	123	3.85	.73	2.93**
	무	22	3.32	.99	
음악활동	유	123	3.70	.82	1.31
	무	22	3.43	1.20	
음악직업	유	123	3.82	.89	2.92*
	무	22	3.21	.90	
음악이해	유	123	3.07	1.04	2.97**
	무	22	2.36	0.92	
음악장르	유	123	3.82	.89	2.92**
	무	22	3.21	.90	
전 체	유	123	3.52	.67	3.63***
	무	22	2.94	.75	

* $p < .05$, ** $p < .01$, *** $p < .001$

<표 19>를 통하여 음악흥미도를 유 경험집단과 무 경험집단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 유 경험집단(M = 3.52)이 무 경험집단(M = 2.94)보다 음악흥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김향숙(2001)과 임형진(2013)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시각장애학생의 악기 연주경험의 유무에 따라 음악흥미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하위요인 중 음악수업과 음악감상, 음악직업, 음악이해, 음악장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그 외의 음악활동에서는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음악수업은 유 경험집단(M = 3.77)이 무 경험집단(M = 3.04)보다 음악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감상은 유 경험집단(M = 3.85)이 무 경험집단(M = 3.32)보다 음악감상을 실생활에서 높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직업은 유 경험집단(M = 3.82)이 무 경험집단(M = 3.21)보다 음악에 관련된 직업에 흥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이해는 유 경험집단(M = 3.07)이 무 경험집단(M = 2.36)보다 음악이론의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악장르는 유 경험집단(M = 3.82)이 무 경험집단(M = 3.21)보다 다양한 음악장르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음악흥미도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1) 음악활동 유 경험집단의 음악흥미도 하위요인 간 관계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활동 유 경험집단의 음악흥미도 하위 요인 간 관계를 알아 본 바 <표 20>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20> 음악활동 유 경험집단의 음악흥미도 하위 요인 상관분석

하위 요인	음악수업	음악감상	음악활동	음악직업	음악이해	음악장르
음악수업	1					
음악감상	.741**	1				
음악활동		.844**	1			
음악직업			.584**	1		
음악이해				.842**	1	
음악장르					.624**	1

** p < .01

<표 20>을 통하여 살펴보면 시각장애학교 중·고등학생의 음악활동 유 경험집단의 음악흥미도 하위 요인 간에 통계적으로 1%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음악감상에도 강한 정적상관($r = .741, p < .01$) 보였고 음악활동에 흥미를 보일수록 음악감상에도 강한 정적상관($r = .844, p < .01$)을 나타냈다. 음악직업과 음악활동 또한 정적상관($r = .584, p < .01$)을 나타냈다. 음악이해가 높을수록 음악직업에 흥미도를 보이는 강한 정적상관($r = .842, p < .01$)을 보였으며 음악장르와 음악이해도 정적상관($r = .624, p < .01$)을 나타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허정화(2008)의 연구에서 정안학생들의 기악교육경험이 음악흥미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악교육의 경험과 현재 음악에 대한 흥미와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세라(2013)의 연구에서도 정안학생을 대상으로 음악활동 경험과 음악흥미도와의 상관관계연구를 통하여 두 변인간의 정적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장애학생의 음악경험의 유 경험집단이 음악흥미도의 다양한 변인과 정적 상관을 보여 줌으로서 학생의 음악활동경험이 있다는 것은 음악흥미도와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활동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음악흥미도를 유지하고, 음악경험이 있는 학생이 유쾌했는가, 즐거웠는지가 흥미를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음악을 즐겁고 즐길 수 있도록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

2) 음악활동 무 경험집단의 음악흥미도 하위요인 간 관계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활동 무 경험집단의 음악흥미도 하위 요인 간 관계를 알아 본 바 <표 21>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21> 음악활동 무 경험집단의 음악흥미도 하위 요인 상관분석

하위 요인	음악수업	음악감상	음악활동	음악직업	음악이해	음악장르
수업	1					
음악감상	.554**	1				
음악활동		.594**	1			
음악직업			.218**	1		
음악이해				.541**	1	
음악장르					.243**	1

** $p < .01$

<표 21>을 통하여 살펴보면 시각장애학교 중·고등학생의 음악활동 무 경험집단의 음악흥미도 하위 요인 간에 통계적으로 1%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음악감상에도 정적상관($r = .554, p < .01$)을 보였고 음악활동에 흥미를 보일수록 음악감상에도 정적상관($r = .594, p < .01$)을 나타냈다. 음악직업과 음악활동은 낮은 정적상관($r = .218, p < .01$)을 나타냈다. 음악이해가 높을수록 음악직업에 흥미도를 보이는 정적상관($r = .541, p < .01$)을 보였으며 음악장르와 음악이해는 낮은 정적상관($r = .243, p < .01$)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허정화, 2008; 이세라, 2013), 정안학생의 경우 음악경험을 한 집단이 음악흥미도에 상관이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경험과 흥미도에 대한 상관이 부적상관이거나 흥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활동 무경험집단은 음악흥미도의 다양한 변인과 정적상관을 보여주므로 시각장애학생은 음악경험이 다양하지 않더라도 음악에 대한 흥미도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음악은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예술 활동이며(Lowenfeld, 1971) 실제로 많은 시각장애학생들이 다른 예술 활동보다 음악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음(박순희, 2010)을 밝히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학생의 음악교과에 대한 연구에서 시각장애학생은 음악교과에 흥미가 높고, 실기분야에 자신감이 높으며 음악적 능력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음악적 특징이 있다(이명신, 2005)고 보았을 때 시각장애학교 중·고등학생은 음악경험이 없을지라도 음악적 흥미와 음악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정안학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시각장애학생의 독특한 음악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악활동 경험 유·무 경험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음악직업과 음악활동의 상관관계와 음악장르와 음악이해에서 낮은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의 차이를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경험활동은 높은 수준이며 활동유형은 방과후 학교, 동아리 활동 사교육 순으로 높다. 동아리 활동은 관현악반이 가장 선호도가 높고, 방과후 학교는 남학생이 목관악기, 여학생은 현악기를 선호하며 사교육은 맹학생은 개인교습, 저시력학생은 음악학원을 선호했다. 동아리 활동,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에 참여하는 활동기간은 맹학생은 3년 이상에서 7년 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저시력학생은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가장 높다. 동아리 활동과 방과후 학교는 현재 진행 중인 학생이 여학생이 많았고 남학생은 진행하지 않음이 많았다. 사교육은 중학생이 진행유지가 많았고, 고등학생은 진행하지 않음이 많았다.

둘째, 시각장애학생의 전반적인 음악흥미도는 높은 수준이며, 그 중 음악감상이 가장 높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과정별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다. 시력정도별로는 맹학생이 저시력학생보다 높았고, 시각손상시기별로는 선천성 학생이 후천성학생보다 높았다. 또한 음악활동 경험에 따라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높았다.

셋째, 시각장애학생의 음악활동 경험 유무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음악흥미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을 때 두 집단 모두 정적상관이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에 따른 후속연구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하여 시각장애학생의 음악활동경험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으로 음악활동경험을 한 계기나 현재의 만족도와 음악활동경험으로 인한 학생의 변화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학생의 음악흥미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음악활동경험으로만 살펴보았으나 가정환경, 학생의 음악성취도 등 다양한 변인에 따른 시각장애학생의 음악흥미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덕원 (2005).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김선희 (2011). **시각장애학생의 합주활동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용복 (2006). **시각장애인 금관악대 실기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 김정화 (2012).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중학교 음악 수업 지도 방안**. 석사학위 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김향숙 (2001).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정서지능과의 관련성 연구 - 중고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홍대 (2011). **시각장애학교 합주부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박순희 (2010). **시각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서울: 학지사.

- 박채경 (2011). **시각장애학교 음악교육 현황과 실태조사**.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박한나 (2011). **시각장애학교 중등부 학생의 음악감상교육실태와 음악감상 선호도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방은영 (2008). **유아 음악성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 효과**.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백민재 (2004). **중학생의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지명 (1995).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음악수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지희 (2007). **시각장애학교 음악 특기·적성교육 실태**.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애지 (2012). **방과 후 특기 적성 음악 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학생 인식 : 강남, 강북 지역 중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경희 (2010). **시각장애 중등부 학생의 음악수업에 관한 인식**.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명신 (2005). **시각장애학교 음악교육에 있어서 효율적인 가창지도의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이상민 (2011). **시각장애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실태와 참여자 인식분석**. 석사학위 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 이세라 (2013). **음악활동경험이 정서지능, 음악적성, 음악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은옥 (2005). **전국 시각장애 학교 음악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 : 음악수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창호 (2011). **시각장애학생의 관악기에 대한 인식**.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형진 (2013). **배경변인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음악적성,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의 차이 분석**. 석사학위 논문.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지혜 (2012). **교내·외 음악활동경험이 음악교과의 성취도 및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윤경 (2009). **음악경험.음악성.학업성적 간의 상관관계 연구 :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윤정 (2012). **시각장애학교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에 따른 음악수업 인식**.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신혜 (2014).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이 아동·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 경상남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정화 (2008). **기악교육과 음악인지능력, 적성, 흥미도간의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황선경 (2007). **시각장애 음악전공자 실태분석**. 석사학위 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 Lowenfeld, B. (1973). *The visually handicapped child in school*. New York: The John Day Company.
- David J. Elliot. (2013). *Music Matters: A Praxial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usic activity Experience and Music Interesting of Secondary Course Students Attending School for the Visual Impairments

Shin, Yeon Seo

Daegu visual impairment laboratory

Lee, Hae Gyun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importance of musical activity experience and musical tendency of visual impairment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by investigating correlation between musical activity experience and musical interest.

First, the level of musical activity experience of visual impairments students were very high. And the types of musical activity were after school program, club activity, private education in order.

Second, the visual impairments students showed high musical interest, especially in listening to music. There were more musical interest in female than male students, highschool than middle school students, blind than low vision students, innate than acquired students, and in experienced students.

Third, both experience and inexperience students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musical interest. Also,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club activity, after school program, and private education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musical interest.

Key Words : visual impairments students, music

논문 접수: 2016. 03. 05 심사 시작: 2016. 03. 10 게재 확정: 2016. 03. 28